



광주시체육회, 2024 우수선수 격려 간담회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15일 광주시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우수선수들의 사기진작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격려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간담회에는 전갑수 체육회장과 당구 전해주, 스쿼시 김가혜 선수 등 우수선수 5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이날 선수별 애로사항과 경기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선수들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광주 시민을 대표하는 우수선수로써 자긍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훈련에 임해준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며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부상에 유의해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최동환 기자



광주 남구, 돌봄이웃 희망주택 주거환경개선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16일 관내 취약계층 세대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희망주택 리모델링(216호점)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

희망주택 리모델링 216호점 대상자는 진월동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정으로 20년 이상 도배를 한 적이 없는 등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을 받은 A씨는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다"며 "덕분에 쾌적하게 주거환경이 개선돼 남구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남구 희망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주거복지 분야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롤 모델로 인정받고 있으며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제1회 주거복지 대상 평가에서도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정상이 기자



광주 북구의회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행사

광주 북구의회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내고 본회의장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추모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북구의회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 후 1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 사회는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며 "아직까지 진실은 완벽히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자 또한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기에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국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서를 대표 제안한 정달성 의원은 "재난 참사의 잠재적 피해자이자 우연한 생존자일 수 있음을, 온전한 진실을 밝히는 게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광주기독병원 이영진 진료지원차장, 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기독병원 이영진 진료지원차장이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제65차 대한병원협회 정기총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사진)

16일 광주기독병원에 따르면 이번 수상은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보건 의료 사업을 수행해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뤄졌다.

이 차장은 지난 2002년부터 22년간 광주기독병원에 재직중인 물리치료사로서 재활분야를 포함한 의료기사 파트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진료 지원부를 책임지고 있으며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광주시 감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또 광주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 광주광역시 감사관 등도 겸하고 있다 이 차장은 "현재 어려운 의료 환경



속에서도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광주기독병원 직원분들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회원분들을 대신해 받은 표창이라 생각한다"며 "다양한 직군의 보건 의료 관계자들과 잘 소통하고 화합해 환자분들께 늘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노병하 기자



광주도시공사, '국민 안전의 날' 캠페인

광주도시공사는 16일 '국민 안전의 날'을 맞아 공사가 관리·운영 중인 빗고을골프장 일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

'국민 안전의 날'은 매년 4월 16일로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의미로 2015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제정된 날이며, 공사에서도 이에 동참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13개소에서 건물 내·외부 및 주변시설에 대해 자체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올해는 제10회 국민 안전의 날을 맞아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빗고을골프장 일원에서 "우리의 안전이 모두의 행복"이라는 중점 슬로건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정민근 도시공사 사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KT, 장애인의 날 기념 노사 공동 '봄나들이'

KT 전남전북광역본부와 KT 노동조합 호남지방본부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노사공동 사회공헌 활동으로 시각장애인들과 함께하는 명소 탐방 봄나들이 행사를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서로를 이해하고 평소 나들이 기회가 적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은 목포 해상 케이블카를 타고 바다를 건너며 상쾌한 봄바람을 즐기고 갯바위 공원에서는 활동 보호사의 안내를 받으며 자연의 향기와 소리를 느꼈다.

이남권 KT 노동조합 호남지방본부 원장은 "이번 여행이 장애인들이 다양한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KT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다도로60 & 베타서바이벌, 스포츠 협약

나주시 다도로60 & 베타서바이벌이 레저스포츠·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다도로60 이경원대표, 베타서바이벌 김태호, 김일두 공동대표, 김호진 전남도의원 및 지역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은 다도로60 개장1주년 기념행사로 사랑나눔콘서트 및 서바이벌 사격체험 등 부대행사도 진행됐다.

다도로60은 영농체험과 카트체험을 접목한 6000평 테마파크로 지난해 4월 설립,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있으며 베타서바이벌도 지난해 5월 설립돼 레저인구 유입 및 단체연수에 인기를 얻고 있다.

다도로60 이경원대표는 다울엔터테인먼트를 기반으로 지역 마이스산업 대표 주자로 20여개 전신체험행사를 주관했으며 농촌체험형 관광콘텐츠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나주=김용의 기자



전남관광재단-솔라시도CC-골프T MOU

전남관광재단은 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위해 솔라시도 컨트리클럽과 골프T 하이골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솔라시도 컨트리클럽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 각 기관 대표 및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

각 기관은 △전남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지원 △스포츠 연계 관광상품 개발 및 행정적 편의 제공 △국내 및 외국 참가선수 유치 노력 및 안정적인 대회 운영 등 분야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전남관광재단 김영신 대표이사는 "스포츠는 관광시장을 확장하고 관광은 스포츠 시장을 촉진하는 유기적인 관계 속에 상호 발전할 수 있다"라며 "전남이 스포츠·관광·문화 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크러쉬 '당신의 5월이 돼도 될까요' 단독 콘서트

가수 크러쉬(Crush·사진)가 단독 콘서트를 연다.

16일 소속사 피네이션에 따르면, 크러쉬는 내달 18-1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2024 크러쉬 콘서트 [메이 아이 비 유어 메이?]' (2024 CRUSH CONCERT [May I be your May?])를 펼친다.

크러쉬는 2012년 싱글 '레드 드레스 (Red Dress)'로 데뷔했다. '오아시스 (Oasis)', '잊어버리지마', '가끔' 등 히트곡을 냈다. 드라마 OST '잠 못드는 밤', '뷰티풀', '돌만의 세상으로



가', '미안해 미워해 사랑해' 등 역시 인기를 얻었다.

크러쉬는 지난해 데뷔 10주년을 맞이하며 정규 3집 '원더 이고(wonderego)'를 발매했다. 타이틀곡 '흠칫(Hmm-cheat)'과 '미워(Ego)'가 호응을 얻었다.

이번 콘서트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에서 가능하다. 오는 24일 오후 8시부터 팬클럽 선예매, 25일 오후 8시부터 일반 예매가 진행된다.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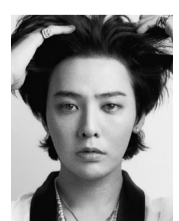
지드래곤, 7년 만에 솔로앨범 낸다... "하반기 컴백"

그룹 '빅뱅' 리더 겸 솔로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사진)이 약 7년 만에 솔로 앨범을 낸다.

소속사 갤럭시스코퍼레이션은 16일 "지드래곤이 올해 하반기 컴백을 목표로 새 앨범을 준비 중이니 기대해 달라"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지드래곤의 솔로 음반은 2017년 6월 발매한 미니 2집 '권지용' 이후 처음이다.

지드래곤은 국내 솔로 가수 중 가장



파괴력이 크다. 그는 K팝 아이돌 그룹 2세대를 연 빅뱅의 간판 멤버다. 자신들의 곡을 직접 만드는 '작곡돌'의 포문을 연 가수다. 퍼포먼스에 치중한 한국 아이돌 그룹 지향도를 바꿨다는 평을 듣는다. 프로듀싱 능력까지 겸비한 그는 '음악적 진보'를 대변하는 아이돌이기도 하다. 뉴스